

농어촌公 충북본부-지사 협력 우기 대비 건설 현장 점검

✎ 성기욱 기자 | ⓒ 승인 2025.06.11 11:04



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우기 대비로 지사와 협력해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. (사진 제공=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)

[충남일보 성기욱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관리 지역내 저수지 공종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본부-지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.

이번 점검은 기상이변과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대비해, 저수지의 제당 성토계획의 적정성과 홍수 시 효율적인 수방체계 마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.

특히 제당 성토공의 안정성, 제당 취약 구간의 보강 여부, 수위 조절 및 방류시설 작동상태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으며, 홍수 시 신속한 물 배제를 위한 계획 수립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.

최현수 본부장은 “이번 점검은 단순한 공사현장 점검을 넘어 재해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”며, “농업생산기반시설이 기후위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지사와 협력해 우기 전까지 추가 점검을 완료하고, 이상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보수·보강 조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.



성기욱 기자 skw9749@naver.com

저작권자 ©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